

#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1)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계발」(공저, 대서)가 있다.

## 서론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 계시록은 한국 교회 안에서 두 극단적인 태도로 취급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나친 결핍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과잉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안에서 요한 계시록은 다루기를 꺼려하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에 있다. 이면에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결코 예외 일 수 없다. 요한 계시록은 철통 보완 장치와 함께 박물관 안에 보관 되어야 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변화 시키는 역할에 감당해야 할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계시록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한번도 그 자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처녀림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기존 교회의 형편이 이렇다고 보니, 요한 계시록은 오히려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온상이 되거나, 기독교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요한 계시록에 대

### 요한 계시록은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양의 승리,  
즉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는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기존 교회의 지나친 결핍이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 등정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요한 계시록에는 유난히도 높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한 없이 겸손한 자세가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 아예 정복이 불가능한 책은 결코 아니다.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교훈)은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 계시록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사용되는 단골메뉴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

시록 앞에 붙어 있는 “접근 금지”의 팻말을 떼어내고, 요한계시록의 숲속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이라는 산에 올라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정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팔을 벌려 신록의 향기를 마음껏 맛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장들로 들어서기에 앞서서, 요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간략하게 계시록의 주제, 계시록의 저술의도,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시록의 읽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주제 성구는 계시록 17장 13-14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도다.” 이 성구를 통하여 계시록의 주제를 보다 세분화해 보면, 세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시록은 싸움의 책이다. 짐승을 중심으로 한 악의 무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린양과 싸우게 된다. 그들이 어린양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들이 순순히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의 공격 대상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12장에서 용이라는 존재가 먼저 아이(예수님)를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신다. 성경은 용의 공격을 무력화 시킨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

고 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 예수님을 삼키지 못한 용은 이제 다음 타깃으로 여인(교회)을 공격하게 된다. 그 결과로 교회는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6, 14절). 결국 계시록은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어린양과 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공격과 그에 대한 응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실상은 원시 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시록의 주제는 어린양의 승리이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어린양이다.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 결국 요한 계시록은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승리이다. 어린양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이다. 그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의 기초가 된다.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분에게 한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

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자들이 이긴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가 그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어진다. “값싼 은혜”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값진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분 안에서 기록해져야만 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진실을 거명한다. 교회 공동체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이 거짓말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교회의 표지는 진실이다. 결국 정리하면, 계시록의 중심주제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양의 승리와 그의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는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 요한계시록의 저술의도:

요한 계시록의 주제를 알았으면 이제 계시록이 어떤 저술의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시록의 저술의도는 적어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계시록은 고난 받는 공동체에게 미래의 운명을 제시하여 현재를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저술되어진 책이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미래를 다루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과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시록이 그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일로 숨게 하는 미래학에 대한 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계시록이 미래를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현재를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조

## 요한계시록은

암담한 현실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자,  
그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과 동시에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다.

장하거나,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로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일의 희망 안에서 오늘을 다시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내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론은 미래 때문에 새로 위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계시록의 배경은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고 할 때, 궁극적인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둘째로, 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저항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저술되어진 책이다. 현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의 골자는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만일 도미티안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의 상황이 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현재를 재조정시킨다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

로 하여금 다시금 악의 도전 앞에서 저항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결단이라는 단어로 대치해도 무방하다. 마지막 까지 저항 혹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언제나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게 될 때, 다른 힘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시록의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되는 첫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 보좌 그 너머에 진정한 통치자가 계신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늘 보좌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악을 향하여 끝까지 항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계시록은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저술된 책이다.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저항 행위는 무력적인 시위 같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의 예배에 대한 독려하는 곳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의 메아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촉구한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계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이 바벨론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이다.

###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시록 읽기의 방향성:

**첫째, 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 받는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다.**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고난이다. 그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인생의 필연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계시록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말해준다. 오늘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반드시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게 하는 책이 계시록이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로 뚫출 수 없는 상황에서 뚫추게 하신다. 신자는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이다. 현실을 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으로 인하여 노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힘겨운 삶 가운데 “모조품(작통)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으로 감격하고 싶다면, 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둘째, 계시록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명시하는 책이다.** 계시록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퍼즐을 맞추는 책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계시록이 미래에 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미래는 미래의 발생할 사건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의미의 미래이다. 계시록은 일종의 그림책이지 수수께끼 책이 아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계시록 이해는 오

류에 빠지게 만든다. 6장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종말은 어린양이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이다.

**셋째, 계시록은 난해하기에 평신도들에게 입산금지**의 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책이다.**

계시록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쉬운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다. 계시록은 쉽다. 그러나 계시록은 또한 어렵다. 어떤 면에서 쉬운 책인가 하면, 계시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명료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포이쓰레스의 주장처럼,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 하신다”는 메시지이다. 이면에서 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다. 전체 숲은 분명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록의 상세한 내용들은 구체화 시키고 현대와 연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도 계시록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난해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부여해 준다. 일단 우리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계시록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계시록 본문의 내용을 우리 모두 다 풀 수 있다는 식의 영적 오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로 거대한 산 등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넷째, 계시록은 65권의 성경과 다른 차원을 언급하는 부록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이다.** 계시록을



흔히 세속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거나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될 때, 놓치는 위험은 나머지 65권의 성경과는 성격이 다른 책으로 다루게 되는 점이다. 성경의 전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을 초림 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말한다.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성경 65권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면 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다. 계시록을 종말론으로만 풀어가는 것은 반쪽자리 진리인 것이다. 계시록은 복음으로 읽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고전 15장에 나와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물론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전의 다른 책에 비해서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무게 비중”만큼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책들과는 달리, 요한 계시록만 불쑥 복음 이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을 깨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해석을 시도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실된 채 행해지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공상 만화와 같은 허무맹랑한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점이다. 필자가 계시록을 복음으로 전제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계시록에서 기독교론이 강조되어야 함

을 역설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의 그리스도를 논하는 기독교론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도전이 되므로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면에서 계시록을 단순히 종말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입각한 종말론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